

복잡한 인허가 등 정부지원 미흡 韓 해상풍력, 해외수출 전환 모색

세아제강, 해상풍력 구조물 등 공급
LS전선, 유럽 중심 해저케이블 강세
SK오션플랜트, 대만 등 아시아 주력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해외에 비해 국내 해상 풍력은 아직 태동기 단계인 만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에 방점을 찍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 추진에 완급 조절을 하는 분위기다. 이에 국내 해상풍력 업계는 해외 수출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4GW(기가와트)였던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2030년 53GW, 2035년 70GW, 2040년 110GW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해상풍력의 경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인해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착수 및 신규 프로젝트 개발 등으로 2030년까지 30GW의 해상풍력 발전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의 일환으로 해상풍력 발전 역량을 2030년까지 65GW로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국내 해상풍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는 실정이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 건설 인프라 부족, 정부의 정책 부족 등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해상풍력 산업이 철수할 위기에 처했다는 부정적 의견들이 팽배한 가운데 기업들은 해외 수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 개발 업체들이 진출한 단지개발 이후 이뤄지는 풍력발전단지



SK오션플랜트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재킷 모습. /SK오션플랜트

구조물 제작에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해상풍력 단지 규모가 커지면 풍력터빈,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해상변전소 등이 필요해 제조업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아제강은 지난 2023년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용 파이프를 프랑스에 공급하는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871억3311만원으로 지난 2022년 별도 기준 매출의 4.8%다. 또한 세아윈드는 영국에서 1조 5000억원 규모의 모노파일 하부구조물 공급 계약을 따냈다. 세아윈드가 제작하는 모노파일 하부구조물 제품은 유속이 강한 영국 해안 특성과 심해에 하부구조물이 설치되는 점을 고려해 부식에 강한 강재를 적용한 특징이 있다.

LS전선은 북미와 유럽 등에서 대규모 수주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3년 5월에는 네덜란드 국영전력회사 테넌트의 독일 자회사 테넌트 오프쇼어와 1조5000억원 규모의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공급계약을 맺

었다. 지난 2022년에는 북미에서 350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용 해저케이블 공급계약을 따내 글로벌 전선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SK오션플랜트는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를 주력 시장으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수출한다. 지난 2023년에는 베트남 BaSon?SREC 컨소시엄과 '해상풍력발전 하부구조물 제작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또한 베트남을 중심으로 풍력 발전용 터빈과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등을 수출해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상풍력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관련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수가 적어 수익성을 확보하기 좋다"라며 "특히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의 경우 무게가 많이 나가기에 이동 및 설치 시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최진식 "중견기업 글로벌 경쟁력 중요"

(중견련 회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간담회
윤진식 무협회장과 상견례도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오른쪽)이 지난 12일 서울 마포 상장사회관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을 만나 중견기업의 경제 영토 확장 중요성을 전했다.

13일 중견련에 따르면 최진식 회장은 전날 서울 마포 상장사회관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와 외교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중견기업이 확고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국적 네트워크 구축, 현지 국가 행정 애로 해소 지원 등을 망라한 전방위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힘써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최근 산업계의 주요 화두인 수출 확대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현지 시장과의 원활한 인적·물적 교류를 심화하려면 경제협정 등 제도적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미국은 물론 아세안, APEC, G20 등 주요 선진국 및 지역협력체와 파트너십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경제 안보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태열 장관은 "양·다자 외교 확장과 경제 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인프라 구축은 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확보로 이어진다"면서 "경제단체를 포함한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민생 경제 외교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최 회장은 또 전날 중견련을 찾은 윤진식 신임 무협회장에게도 "현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무협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악화된 무역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수출 활성화를 통한 위기 극복의 모멘텀을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배터리 물류 사업 확대

IATA서 항공운송 인증 자격 취득
리튬 배터리 운송 전문인력 양성



CJ대한통운 장영호 IFS본부장(오른쪽)이 국제항공운송협회 김백재 한국지사장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본사에서 CEIV Lithium Batteries 인증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리튬 배터리 항공운송 국제표준인증 취득하고 특화 경쟁력을 앞세워 고부가가치를 지닌 배터리 물류 사업 확대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부터 리튬 배터리 항공운송 인증(CEIV Lithium Batteries) 자격을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

CEIV 리튬 배터리 인증은 IATA가 리튬 배터리 운송 절차와 시설, 장비, 규정 등 다양한 항목을 면밀히 평가해 국제적인 운송 전문성과 우수성을 갖춘 업체들에게 발급해주는 국제표준인증이다.

리튬 배터리는 국제운송 중 화재, 폭발 등의 위험성으로 인해 운송 난이도가 매우 높고 엄격한 관리가 수반된다. 이에 따라 배터리 제조사들은 포워드(운송주선업체), 운송사, 항공사 등 물

류 수행기업 선정 시 국제표준인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인증을 통해 CJ대한통운의 배터리 물류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국제항공운송협회 교육을 통해 리튬 배터리 운송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별도의 취급 절차와 기준도 마련해 물류 운영의 안전성을 높였다. /김승호 기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에 34만명 몰려

중기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보고
'이자환급' 프로도 차질없이 준비
지역 TP 원장들과 간담회 예정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지원에 총 34만 여명이 몰렸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서류제출 없이 최대 20만원의 요금을 차감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오전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생업 전선에 계신 소상공인 대표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2일 기준 총 33만7682명이 신청했다.

오 장관은 "금리부담을 최대한 낮춰드리기 위한 '대한대출'은 2월2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3월29일부터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량한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을 가져주고 계시다.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부산, 진주, 창원, 광주에 이어 지난 12일 대구를 방문하고 나서다.

오 장관은 "중기부 차원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문제는 '현문우담'의 정신으로 조속 해결해나갈 계획"이라며 "수도권 이외 중소벤처기업 지원은 수도권과 지방 격차 해소, 지방경제활성화, 지역소멸방지에 기여할 수 있어서, 정책적 함의가 큰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관련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고, 부내 정책토의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오 장관은 14일 오전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역에 있는 테크노파크(TP) 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도 추가로 청취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키르기스스탄과 '중소 지원정책 발굴'

기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기술보증기금이 키르기스스탄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발굴 등을 위해 나선다.

기보는 지난 12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키르기스스탄 보증공사와 중소기업 지원정책 발굴과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보증공사는 세계은행(World Bank)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의 보증제도 및 성과를 연구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의 기술평가 보증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전수받고 지식교류 프로그램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기보는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기보의 주요성과 ▲기술평가시스템 등 타 보증기관과 차별화된 업무영역 소개 ▲기술평가시스템 해외전수 사례 ▲기술거래사업 등을 안내하고, 향후 실무자 교류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